

‘캡틴 현수’ 끌고 ‘영웅 우찬’ 밀고

정우영 “현수 형 팀 기여도 50% 차지”
유강남 “열심히 하는 모습에 시너지”
임찬규 “우찬 형 밖에서도 후배 챙겨”
고우석 “괜히 리더가 아냐...내 영웅”
김현수·폐계로 ‘홀런포’...LG 5연승



김현수(왼쪽)와 차우찬(오른쪽)



“정말 끈끈해졌어요.” 이미 3년만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된 LG 트윈스 구성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다. 그 배경에는 야수 조와 투수조의 든직한 기동 역할을 한 주장 김현수(31)와 차우찬(32)이 있다.

전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LG의 든직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현수는 18일 대구-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려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4연승 경기 홀런포를 가동한 카를로스 페게로와 환상의 시너지를 낸 김현수는 팀 5연승의 선봉에 섰다.

김현수가 팀 내 최고 타율 0.317에 최다 82타점을 쓸어 담은 가운데 토종 에이스 역할을 맡은 차우찬은 13승으로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았다. 어느 TV 드라마의 제목을 빌리자면 둘은 팀 내에서 ‘밥 잘 사주는 멋진 선배’로도 통한다. 이형종은 “두 선배가 팀 내에서 리더 역할을 정말 많이 해준다. 주축이 되어 주는 형들이고 인성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신에 투수 정우영은 대내외적으로 ‘김현수 자부심’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타

팀에 속한 또래 선수들이 “김현수 선배가 그렇게 좋다. 너희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물어오면 “우리 팀에 현수 형이 있는 게 정말 크다”고 자신 있게 답하는 식이다. 그는 “현수 형이 주장으로서 팀 분위기를 정말 잘 이끌어준다. 올 시즌 팀 성적에 대한 현수형의 기여도가 50%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포수 유강남도 주장 김현수를 통해 단단해진 팀 분위기를 느낀다. 그는 “선배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후배들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덕분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다. 서로 많이 이해해주려 하고 팀이 정말 많이 끈끈해졌다”고 했다. 이어 “야구장에서 안일한 플레이를 하면 혼난다. 적절한 긴장감 속에서 점수차와 관계없이 모두들 더욱 집중하려고 한다”며 “덕분에 여유롭게 앞선 상황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 같다”고 했다.

투수조는 차우찬을 중심으로 친목의 장이 실 새 없이 열린다. 홈런기를 앞둔 점심시간에는 개별 훈련을 마친 뒤 한데 모여 밥을 함께 먹는 분위기가 자연스럽

게 형성됐다. 계산은 늘 차우찬이 책임진다. 차우찬이 선발 등판하는 날이면 임찬규, 이우찬, 최동환 등이 돌아가며 밥을 산다. 임찬규는 “우찬이 형은 야구장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후배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준다. 후배들 역시 형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야수인 이형종도 “우찬이 형은 후배들을 정말 많이 챙겨주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 할 정도다.

원정길에 오르면 투수조 모임은 주로 고우석의 방에서 이뤄진다. 이 때 선배배간의 일상적인 대화부터 야구에 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고 간다. 고우석은 “올해 투수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그래서 더 끈끈해지기도 했다”며 “찬규 형이나 우찬 선배와 같이 있으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재미있다”고 미소 지었다. 이어 “솔선수범하는 우찬 선배의 모습을 보면 후배들도 뒤쳐질 수가 없다. 괜히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고우석은 이런 차우찬을 “영웅”이라고 부른다.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우승 확정이나 실낱 희망이나 SK vs 두산 ‘운명의 더블헤더’

19일 오후 3시부터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리는 2019시즌 첫 더블헤더가 갖는 무게감은 엄청나다. 일찌감치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하고 싶은 SK 와이번스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두산 베어스가 만난다.

●끌내고 싶은 SK

18일 인천 NC 다이노스전에서 0-6으로 패한 SK(84승1무50패)와 3위 두산(79승54패)의 게임차는 4.5경기다. 3.5경기차 2위 키움 히어로즈(83승1무56패)의 잔여게임은 4경기에 불과해 SK의 잠재적인 경쟁상대는 두산으로 봐야 한다. 이번 더블헤더를 통해 현재 8인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를 4까지 줄일 수 있는 만큼 마지막 투혼을 불태워야 한다. 다행히 14일 인천 두산전에서 4-6으로 끌려가다 9회말 3득점으로 역전승(7-6)을 거둔 덕분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크게 덜었다. 더블헤더에서 1승1패만 거둬도 4.5경기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절대 유리한 위치다. 2경기를 독식한다면 두산과 게임차를 6.5경기까지 벌리며 정규시즌 우승의 9부 능선을 넘게 되는 만큼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다. 1차전 선발투수는 올 시즌 두산전 한 경기(6월 22일 인천)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한 문승원. 2차전은 에이스 김광현이다. 김광현은 올 시즌 두산전 2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ERA) 2.13을 기록했다.

●끝까지 가고 싶은 두산

두산에도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있다.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SK와 더블헤더를 통해 게임차를 2.5경기까지 줄인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두 추격에 박차를 가하며 동기부여가 커지는 데다 키움과 치열한 2위 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PO)에 직행하는 2위와 준플레이오프(준PO)부터 치러야 하는 3위의 차이는 엄청나다. 2위에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다소 침체된 선수단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1차전 선발투수로 낙점한 세스 후랭코프에게 그동안 휴식을 주며 로테이션을 조정했던 것도 이번 더블헤더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과다. 2차전 선발투수 이영하는 최근 4경기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QS·선발투수 6이닝 3자책점 이하)를 거두며 승리를 따냈고, ERA도 1.73에 불과할 정도로 페이스가 좋다.

●어색하지 않은 더블헤더

SK는 지난해에도 더블헤더 경험이 있다. 10월 6일 인천에서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1승1패를 기록했다. 1차전에서 4-8로 패했지만, 2차전에서 7-5의 승리를 거두며 반타짜에 성공했다. 두산은 144경기 체제의 첫 시즌인 2015년 9월 24일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더블헤더를 치러 1차전을 3-2로 승리한 뒤 2차전에서도 10-6으로 이겼다. 그 기세를 몰아 막판 순위싸움에서 4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를 0.5게임차로 따돌리고 3위로 준PO에 진출, 한국시리즈 패권까지 차지한 좋은 기억이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NC 외국인투수 크리스천 프리드릭(53번)이 18일 인천 SK전에서 짜릿한 완봉승을 거두고 6-0 대승을 이끈 뒤 이동욱 감독(맨 왼쪽)을 비롯한 NC 선수단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프리드릭의 완봉 역투를 앞세운 NC는 5위 확정에 한발 더 다가갔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첫 완봉승에 웃은 프리드릭...3피홈런에 운 소사

(NC) (SK)

프리드릭, SK전 9이닝 6K 시즌 7승 NC, 5위 확정 매직넘버 '4'로 줄여 휴가 복귀 소사는 6이닝 6실점 3패

NC 다이노스 크리스천 프리드릭(32)이 KBO리그 첫 완봉승을 거뒀다. 이에 맞선 SK 와이번스 헨리 소사(34)는 장기 휴식 후 치른 복귀전서 대량 실점으로 패전의 명을 썼다.

양 팀 외국인 선발 투수의 희비가 엇갈렸다. 프리드릭이 활짝 웃었다. 18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 그는 9이닝 5안타 6삼진 3볼넷으로 무실점 피칭을 완성해 팀의 6-0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NC는 6위 KT 위주에 4게임차로 앞서면서 5위 확정 매직넘버를 4로 줄였다. 반면 소사는 6이닝 7안타(3홈런) 4삼진 1볼넷 6실점으로 고전했다. 체력 저하를 우려해 16일간 부여했

던 특별 휴가는 당장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8승에 멈춰선 소사는 시즌 3패째를 떠안았다.

프리드릭이 SK 타선을 꼼짝없이 묶었다. 슬라이더(51개), 직구(47개), 커브(7개), 체인지업(7개), 투심 패스트볼(5개)을 영리하게 섞어 던진 것이 주효했다. 특히 모든 구종에 경쟁력이 있었다. 슬라이더로 3개, 직구로 2개, 커브로 1개의 삼진을 솟아냈을 만큼 위력적인 피칭이 이뤄졌다. 수비 도움

도 적절히 뒤따랐다. 6·7회 각 한 차례씩 야수들과 병살타를 합작하며 순조롭게 고비를 넘겼다.

소사는 팀 홈런 1위(124개) NC 타선의 장타 폭격에 속절없이 흔들렸다. 제이크 스톨린스키에 2회 좌월 솔로 홈런, 4회 좌월 투런포를 연달아 허락했다. 두 번 모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직구가 철저히 공략을 당했다. 0-4로 뒤진 6회 1사 주자 3루 상황에 돌아온 스톨린스키의 타석에서 폭투로 허무하게 한 점을 더 내준 소사는 끈이어 노진혁에게도 조구 직구를 던져 우월 솔로 홈런을 맞았다. 인천 | 서대영 기자

KIA, 서동욱·김주형·박경태 웨이버공시

서동욱, KIA와 이별은 이번이 2번째 ‘아픈 손가락’ 김주형·박경태도 방출

KIA 타이거즈가 투타 베테랑 3인과 이별했다.

KIA는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을 앞두고 내야수 서동욱(35), 김주형(34), 투수 박경태(32)의 웨이버공시 소식을 알렸다.

KIA는 보도자료를 통해 “3명의 선수들과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홍식 감독대행은 “상무 전역 자원들

의 엔트리 등록을 위한 조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KIA는 최정용, 장지수, 류승현, 이정훈을 1군에 등록하고 기존 엔트리에서는 김주찬, 한승택, 양현종, 조 윌랜드를 말소했다. 박 감독대행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는데, 베테랑 3인의 웨이버공시 또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서동욱은 KIA에서 굵은 역할을 도맡았던 자원이다. 2003년 2차 1라운드로 지명을 받았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LG 트윈스로 트레이드 됐다. 이후 히



서동욱, 김주형, 박경태

어로즈를 거쳐 무상 트레이드로 다시 KIA 유니폼을 입었다. 트레이드 경험만 무려 세 번이나 되는 선수다.

만능 유틸리티 자원으로 KIA 복귀 이후에는 내야 전 포지션을 고루 맡았다. 2016년에는 16홈런을 때리는 등 파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하다 결국 팀을 떠나

게 됐다.

‘아픈 손가락’ 김주형은 기량을 만개하지 못한 채 타이거즈와 이별했다. 2004년 1차지명으로 많은 기대를 안고 입단했으나 공수에서 늘 ‘2%' 부족한 모습을 보여 주전 자리를 꿰치지 못했다. 2016년에 타율 0.281, 19홈런, 49타점, 43득점을 기록한 게 가장 좋았던 때의 모습이다. 이후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올해는 1군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팀을 떠났다.

박경태는 좌완투수로 주로 불펜에서 마당쇠 역할을 했다. 2006년 데뷔 이후 오직 KIA에서만 뛰었는데, 233경기 4승 20패 15홀드, 평균자책점 6.42를 기록한 채 타이거즈 생활을 마무리했다.

광주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